

# Issue Report

2016. 5. 31

## CONTENTS

### < 요약 >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태안군 인구 및 대내외 여건 변화 현황
3. 도시민 유치정책 사례 분석
4. 결론 및 정책제언

## 태안군 도시민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 정책 사례 분석 연구

박경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kcpark@ed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태안군의 인구 여건과 국내외 주요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정책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현재 과소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안군의 도시민 유치 정책에 시사점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요 약

- 태안군은 이전에 비해 인구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인구가 약간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2015년 태안군의 인구는 전년대비 1.5% 증가하는 등 최근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인구 유치를 추동할 수 있는 도시민 유치 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자체 가운데 새로운 농촌마을 혹은 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민 유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분석한 사례지역은 국내의 경우, 고창군, 남해군, 완주군, 곡성군 등 4개 지역이며, 국외의 경우, 독일과 일본의 4개 지역임
  - 고창군은 농어촌뉴타운 조성, 은퇴자촌인 웰파크시티 조성을 통해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고 있고, 남해군은 독일마을, 미국마을 등을 조성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으며, 완주군은 전주시와의 지리적 근접성을 활용한 전원마을을 조성했고, 곡성군은 109세대 전원마을을 조성해 도시민을 유치했음.
  - 일본과 독일의 지자체들도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영구 거주단지보다는 체류형 시민농원 조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독일의 경우는 아이들교육, 환경 개선, 에너지 자립 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함
- 따라서 태안군도 위와 같은 사례 지역의 도시민 유치 정책을 검토해 지역에 적합한 도시민 유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례지역의 도시민 유치사업은 각기 지역적 특성과 그 정책적 내력이 있기 이를 잘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01

- 전 세계적으로 탈성장,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뉴노멀 경제가 계속 되면서 도시로 집중됐던 인구가 점차 자연과 가까운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음.
  - 전후 고도성장기를 보냈던 일본의 단괴세대(團塊世代)가 현재 은퇴시기를 맞아 농촌으로 귀향하는 추세에 있고, 중국 또한 10%의 고도경제 성장기가 끝나가면서 도시로 몰렸던 농민공(農民工)들이 농촌으로 돌아가는 추세(返鄉)에 있음.
  - 유럽은 우리보다 산업화가 빨리 진행되면서 역도시화(농촌회귀)가 일찍부터 나타났음. 농촌에서 장기 휴양 및 휴가를 보내거나 별장을 갖거나 가끔씩 환경이 좋은 농촌에서 출퇴근하려는 성향이 강함.
  - 우리나라 또한 고용 없는 성장과 1세대 산업인력들이 현재 은퇴시기를 맞으면서 자연과 환경이 좋은 농촌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하지만 우리나라 농어촌은 현재 과소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농어촌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농어촌주민은 도시민에 비해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삶의 질의 저하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어 한계(限界)마을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인구 감소와 더불어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농수산물 시장개방이 논의되기 시작한 1990년 도농 간 소득 격차는 97.2%였으나 2014년에는 61.5%까지 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태안군 또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태임.

## 태안군 인구 및 대내외

## 여건 변화 현황 ◀

- 태안군이 복군(復郡)한 1989년 인구는 84,929명이었으나 2016년 4월 현재 63,505명으로 약 25.2%가 감소함.
-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농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태안군의 고령화율은 2010년 21.6%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했으며 이후 2015년 25.8%, 2016년 4월 26.0%로 악화되고 있는 상태임.
- 윤정미(2016)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고령화(65세 이상)가 50% 이상 진행된 자연마을의 비율은 태안군이 54.3%로 서천군 5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음. 다음으로 서산시 47.6%, 청양군 47.0%로 나타남.

● 현재 많은 시군에서 도시민 유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정책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1997년 IMF 외환위기에 한 차례 귀농·귀촌 붐이 일다가 2000년 중반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귀농·귀촌 붐이 일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책을 시행함.
- 예를 들어, 전북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완주군은 로컬푸드를 통해 귀농·귀촌인 유치했고, 남해군은 독일인마을과 미국인마을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유치했음. 또한 전북 고창군은 농어촌뉴타운과 웰파크시티를 조성해 도시민 유치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도시민 유치 정책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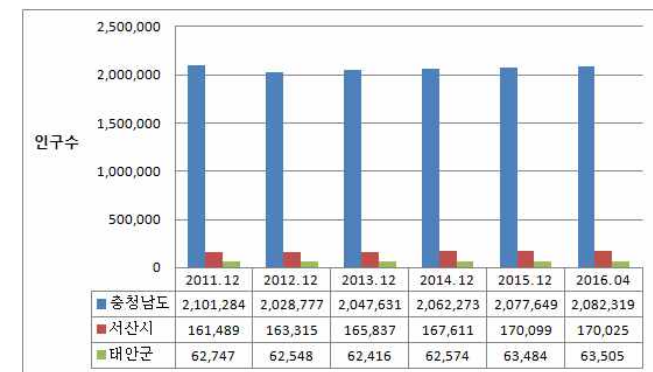
●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절벽 시대에 타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정책 사례를 분석해 향후 태안군의 도시민 유치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최근 들어 태안군의 인구는 다시 증가하고 있음. 이는 태안군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환황해 경제권에 대한 기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민 유치 전략이 필요함.
- 도시민 유치정책은 크게 개별적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S/W)과 집단적 거주자를 위한 마을 및 단지조성 정책(H/W)으로 나눌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두 정책을 모두 고려하되 기존의 귀농·귀촌정책을 넘어서 집단적 거주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 전략도 함께 고려하고자 함.

## 1) 인구 변화 현황

● 최근 5년간 태안군의 인구 추이를 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됨.

- 충남도의 경우 2012년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 면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면서 감소했다가 이후 점점 증가 추세로 전환됨.
- 태안군과 인접한 서산시의 경우, 2011년 이후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5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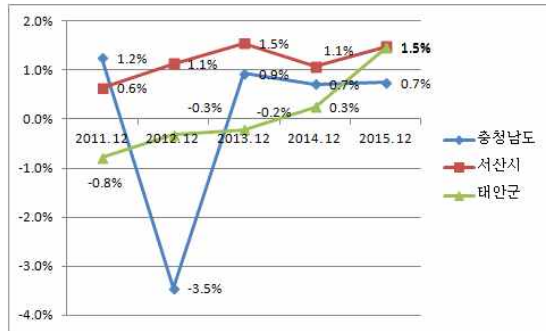


[그림 1] 인구 추이 비교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tat.go.kr/>)

● 최근 5년간 태안군의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감소하기는 했으나 감소폭이 줄어들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함.

- 비교적 최근인 2014~15년 사이 인구 증감 추이를 보면 태안군은 0.3%에서 1.5%로 1년 사이 1.2%를 보인 반면, 충남도는 0.7%로 정체, 인근 서산시는 0.4% 증가에 그침.
-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태안군의 인구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림 2] 인구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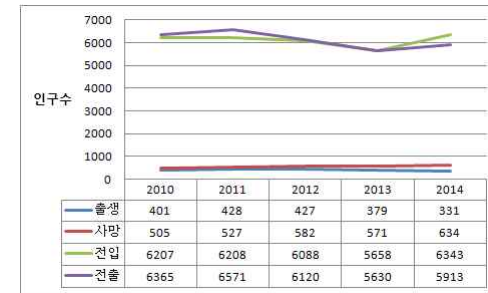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tat.go.kr/>)

주: 충남도는 2012년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면서 일시적으로 인구 감소함.

● 최근 태안군 인구 증가의 원인은 전입인구의 증가 때문임.

- 태안군의 최근 5년간 인구 증감 요인을 보면 사망이 출생보다 여전히 많긴 하지만 2013년부터 전입인구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인가가 증가함.
-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출생자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303명 많았으나, 같은해 전입인구는 전출인구에 비해 430명으로 127명이 증가함.



[그림 3] 인구 증가 요인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tat.go.kr/>)

● 태안군 전입인구의 대부분은 귀농귀촌인구로 판단됨. 2014년 태안군의 귀촌인구(가구주)는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에 이어 4위를 차지함.

- 귀촌 전 거주지를 보면, 경기도가 31가구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인천으로 30가구, 서울이 25가구로 나타남. 충남 내 지역은 11가구로 비교적 낮음.
- 따라서 태안군으로 전입한 대부분의 인구는 수도권에서 유입한 것으로 나타남.

[표 1] 2014년 충남도 각 시군별 귀촌인(가구주) 및 귀촌 전 거주지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천안시	6	1	0	0	0	0	0	0	0	1	0	0	4	0	0	0	0	0
공주시	60	13	0	0	5	0	24	0	2	8	0	4	4	0	0	0	0	0
보령시	57	19	2	0	4	0	4	0	0	23	1	0	4	0	0	0	0	0
아산시	11	3	0	0	1	0	0	0	0	5	0	0	2	0	0	0	0	0
서산시	27	15	0	0	1	0	0	0	0	11	0	0	0	0	0	0	0	0
논산시	61	16	0	0	0	0	25	0	2	8	0	0	7	2	0	0	1	0
계룡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당진시	20	9	0	0	3	0	1	0	0	5	0	0	1	1	0	0	0	0
금산군	59	6	1	0	1	1	35	0	0	12	0	0	2	0	0	1	0	0
부여군	47	13	1	0	5	0	1	1	0	15	0	1	4	2	1	3	0	0
서천군	329	67	6	1	31	2	26	1	0	93	2	8	40	39	3	3	4	3
청양군	294	50	4	0	21	2	37	1	4	109	4	9	41	5	2	2	3	0
홍성군	91	33	1	0	8	0	5	0	0	36	0	1	6	1	0	0	0	0
예산군	139	34	2	0	26	1	13	0	0	48	0	0	13	0	0	1	1	0
<b>태안군</b>	<b>120</b>	<b>25</b>	<b>5</b>	<b>6</b>	<b>30</b>	<b>0</b>	<b>5</b>	<b>0</b>	<b>0</b>	<b>31</b>	<b>3</b>	<b>0</b>	<b>11</b>	<b>0</b>	<b>2</b>	<b>1</b>	<b>0</b>	<b>1</b>
합계	1,321	304	22	7	136	6	176	3	8	405	10	23	139	50	8	11	9	4

자료: 농림부, 귀촌통계 자료.

## 2) 대외 여건 변화

### (1)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상의 태안군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중장기 종합·전략계획으로서 조광역개발권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천계획임.(태안군, 2014)
  - 그 가운데 태안군은 종합에너지 특구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선두주자로 육성하고, 농어촌 저탄소 에너지자립마을, 녹색 슬로우푸드마을, 농어촌 생태관광 등을 조성할 계획임.
  - 또한, 천수만을 중심으로 태안 기업도시, 서산 웰빙특구, 안면도 등을 결합하여 레저·휴양, 농업·생명공학이 연계된 국제 관광 콤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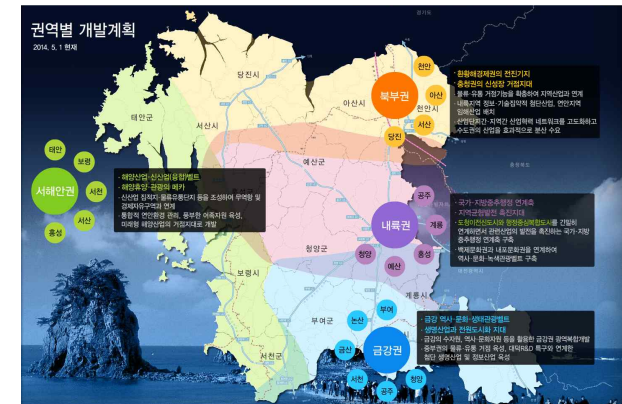


[그림 4] 서해안권 공간 발전 구상

자료: 국토해양부. 2010.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

### (2) 충남도 권역별 개발 계획 상의 태안군

-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 계획을 보면, 태안군은 보령, 서천, 서산, 홍성과 함께 서해안권에 속하며 향후 해양산업·신산업(융합)벨트, 해양관광·휴양도시로 개발할 계획임.(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2~2020)
  - 그 가운데 태안군은 해양형 국제관광거점 휴양도시로 개발할 계획임.
  - 태안 기업도시와 안면도 관광지를 연계 개발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서해안 관광산업벨트 구축
  - 태안 천일염 육성 지원, 연안 바다목장 조성, 마을어장 환경 개선 등 수산업 육성
  - 생태관광 기반 조성, 체험·교육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태안 환경관광지구 조성 등



[그림 5] 충남도 권역별 개발계획(2015.5)

자료: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충남(<http://www.chungnam.net/cnreport/index.html>)

### (3) 태안군 중장기 비전과 목표

- 태안군의 지역발전 지향점이자 미래상은 『사람과 바다, 숲, 꽃이 어우러진 오



감만죽 사계절 관광휴양도시』로 설정됐으며 부문별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음.(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2014~2023)

- 관광·문화: 감성이 충전되고 활력이 상승하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마련
- 농어업 및 농어촌 개발: 역외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농어촌의 역동적인 발전
- 정주환경: 누구나 살기 좋고 활기찬 정주환경 조성
- 교통인프라: 자연과 사람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 구축
- 생태환경: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청정 환경 서해 1번지 조성
- 방재·에너지: 지속발전 가능한 그린에너지안전도시 창출

-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2014~2023)에 따르면, 태안군은 향후 10년 동안 인구 10만 명, 1인당 GRDP 5,240만 원, 관광객 2,000만 명, 농어촌 삶의 질 전국 50위권(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함.



[그림 6] 태안군의 미래상  
자료: 태안군. 2014.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2014~23)

### 3) 태안군 도시민 유치 SWOT 분석

- 태안군의 도시민 유치 SWOT 분석 결과 강점과 기회 요인이 많은 반면, 약점과 위협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향후 태안군의 도시민 유치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특히, 미래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그 가운데 중국의 부상 이후 서해안을 비롯한 환황해 경제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태안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 태안군 도시민 유치 SWOT 분석

▶ 강점	▶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려한 자연경관과 충남도에서 가장 긴 해안선</li> <li>■ 여름 휴양을 위한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최근 다양한 축제 개최</li> <li>■ 농업과 어업의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고 수산자원 풍부</li> <li>■ 수도권과 가까운 교통 여건</li> <li>■ 도시민 유치를 위한 군정의 확고한 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면도와 수산업 이외 도시민을 유인할 수 있는 소재 빈곤</li> <li>■ 귀농귀촌사업 이외 도시민 유치사업의 경험 부족</li> <li>■ 특히 새로운 테마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사업 전무</li> </ul>
▶ 기회	▶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 중국경제의 부상과 환황해 경제권 부흥으로 기대 상승</li> <li>■ 서산대산항의 대중국 여객선 취항 (2017년 상반기 예정)</li> <li>■ 안면도와 보령을 잇는 연육교 건설 예정(2018)</li> <li>■ 해삼 등 고부가가치의 수산물과 해양레저 및 휴양산업에 대한 관심 고조</li> <li>■ 최근 군내 귀농·귀촌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추세</li> <li>■ 안면도 투자 개발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분별한 펜션의 난립으로 인해 거주보다는 단기 관광 및 체류 이미지 강함</li> <li>■ 안면도 개발 계획의 표류로 인한 지역발전 청사진 부재</li> <li>■ 도시민들의 앞선 투기로 인한 높은 지가 형성</li> </ul>

## 1) 도시민 유치 트렌드 분석

- 우리나라 도시민 유치 트렌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개별적 귀농·귀촌인 유치, 2)테마마을 조성을 통한 마을단위 도시민 유치, 3)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
- 현재 각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의 트렌드는 개별적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치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이색적 주제를 담은 다양한 마을 조성을 통해 도시민을 유치해 주목을 받고 있음.
  - 그 가운데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자체별 도시민 유치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3] 주요 지자체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단지) 조성 사례

지자체명	마을(단지)명	참고
고창군	월곡 농어촌뉴타운(꿈에 그린 마을), 웰파크시티(은퇴자촌)	귀농·귀촌정책 참고 필요
곡성군	강빛마을(주거와 민박 결합)	가장 큰 전원마을
남해군	독일마을, 미국마을, 중국마을(예정), 빛담촌(펜션형마을)	
보은군	선애빌(친환경·명상공동체마을)	2015년 행복마을 콘테스트 최우수
서천군	산너울마을(에너지자립형 생태전원마을)	
완주군	모악호수마을	
전라남도	남도 한옥전원마을	전남도

## 2) 도시민 유치정책 사례 분석: 국내 사례

### (1) 고창군: 귀농귀촌+레저휴양형 도시민 유치 전략

#### 가. 월곡 농어촌뉴타운(일명 ‘꿈에 그린 마을’)

- 고창군은 한꺼번에 많은 귀농·귀촌인을 수용할 수 있는 월곡 농어촌뉴타운(일명 ‘꿈에 그린’)을 조성해 각광을 받음.
  - 고창군은 산운산과 구시포·동호해수욕장 등 산과 바다의 풍광이 좋고 수박과 고추, 풍천장어와 복분자 등 물산이 풍부해 최근 귀농·귀촌인들이 몰려다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뉴타운을 조성함.
  - 고창읍과 인접한 월곡 농어촌뉴타운은 농림부의 농어촌뉴타운사업을 지원받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149,882㎡(약 4만5천 평) 크기로 건설됨. 100세대 규모의 귀농·귀촌인 단지 내에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유치원 등의 시설을 갖춰 입주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임.
  - 더욱이 단지 내 군청의 귀농귀촌지원 부서가 입주해 귀농·귀촌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시가스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자립형 주택을 선보여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함.
  - 하지만 고창군 농어촌뉴타운은 관내 농업인 입주 비율이 50%를 상회하면서 귀농·귀촌인 유치라는 사업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평가도 있음.

※ 참고로 농어촌뉴타운사업은 2009~2012년 국비와 지방비 1061억 원을 투입해 충북 단양, 전북 장수와 고창, 전남 장성과 화순 5곳에 650가구 규모로 조성됨.



[그림 7] 고창군 월곡 농어촌뉴타운 '꿈에 그린' 전경



[그림 8] 고창 웰파크시티 조감도(홍보자료 참고)

## 나. 웰파크시티(은퇴자촌)

- 자연과 주거, 건강과 레저시설을 갖춘 종합 리조트형 은퇴자 마을을 조성 중에 있음.(홍보자료 참조)
  - 서울시니어스타워와 서울송도병원이 투자하고 고창군이 협력해 우리나라에서 선진적 개념의 한국형 리타이어먼트빌리지(은퇴촌)인 웰파크시티를 건설함.
  - 웰파크시티는 2007년 고창읍내 외곽인 석정온천관광지구 165만㎡(약 50만 평)에서 첫 삽을 뜬 이후 2011년부터 부분 개장을 시작했음. 현재 이곳에는 석정온천휴스파와 눈썰매장, 18홀 퍼블릭골프장, MBT장(산악자전거)이 개장되었고, 재활병원, 관광호텔 건설이 진행 중임.
  - 단지 안에는 건강황토펴션(167실)과 골프빌라(218세대)가 문을 열어 투숙객들이 단지 내 식당가와 약국, 은행,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있고 현재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578세대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음.
  - 전체 10동 가운데 2동(140세대)이 현재 분양 중이며 분양가는 3.3㎡(평)당 약 700만 원임.
  - 고창군은 웰파크시티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으로 약 100억 원을 투자했으며 토지 매입 과정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원함.

## (2) 남해군: 이국적 특성+해변휴양마을형 도시민 유치전략

- 남해군의 도시민 유치 전략은 국내를 넘어 독일, 미국 등 해외로까지 확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최근에는 전원주택과 펜션을 접목한 마을조성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 가. 독일마을

- 남해군의 독일마을은 독일식 건물이라는 이국적 특성과 독일거주 교포들을 고국으로 유치해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지역 관광사업도 더불어 활성화됨.
  - 독일마을은 아시다시피 60년대 산업역군으로 독일에 광부, 간호사로 파견되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독일거주 교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테마마을임.
  -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 5년이며 사업비는 170억 원(공공

76억 원, 민자 94억 원), 규모는 9만㎡(약 2만7천 평)에 달함. 이 사업은 당초 경상남도에서 모자이크사업(시군별 200억 지원)으로 추진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 개발사업 변경해 추진함.(남해군 내부 자료)

- 현재 조성된 택지는 전량 분양되었고 주택 37동이 완공되었고 3동이 건축 중에 있음. 최근 마을 내에 최근 파독전시관도 설립되고 매년 10월일 백주축제가 열리면서 이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많아지고 있음.

● 남해군은 독일마을의 성공적 조성에 이어 미국마을도 조성했으며 최근에는 중국마을 조성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음.

- 한류의 영향과 최근 중국 내 환경오염의 심화에 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찾는 점을 감안해 현재 남해군은 중국마을(정확히는 한중문화교류단지)을 조성할 계획임.
- 남해군에 따르면, 중국마을 조성사업은 10만㎡의 면적에 15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함. 2017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돼 2021년에 완공되면 총 45세대가 입주할 예정임. 마을 내 문화교류를 위한 시설들도 입지해 향후 한중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 나. 남해 빛담촌

● 빛담촌은 남해군이 전원마을사업으로 독일마을, 미국마을에 이어 세 번째로 조성한 마을로 펜션을 겸할 수 있음.

- 이 마을은 남해군 남면 선구리 일원에 21,764㎡ 규모로 20동의 건물이 조성되었으며 대부분은 거주와 펜션을 겸하고 있음. 마을 내에는 마을회관도 있으며 공동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홍보하고 있음. 인근에 작은 포구와 아름다운 해변이 있어 체험을 위한 방문객들도 이곳을 찾고 있음.
- 이 마을의 특징은 대부분 개인 주택(별장)과 펜션을 결합한 주택 형태를 갖추고 있어 주거와 휴양 그리고 소득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임. 마을 내에 다양한 형태의 거주형 이색 펜션이 형형색색 조화를 이뤄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하고 있음.



[그림 9] 남해 빛담촌 현황도(마을 홈페이지 참고)



[그림 10] 남해 빛담촌 전경 및 펜션형 주택

## (3) 완주군: 로컬푸드+전원주택형 도시민 유치 전략

● 우리나라 로컬푸드정책의 본거지로 평가되고 있는 완주군은 남부 구이면 모악산 자락에 전원형 주택단지인 모악호수마을 조성해 도시민을 유치하고 있음.

- 완주군에서 가장 큰 로컬푸드 직매장인 해피스테이션이 있는 구이면의 구이저수지 주변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군비 25,836백만 원을 들어 162㎡(택지 160필지) 크기로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했음. 현재까지 160필지 모두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전체의 약 44%인 71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임.

- 그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09년 7월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 결정 고시, 2010년 8월 마을정비구역 지정 고시, 2014년 2월 기반공사 준공, 같은 해 10월 주택용지 분양 완료함. 2015년 7월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준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1] 완주군 모악호수마을(구이면 소재)



[그림 12] 완주군 로컬푸드직매장  
해피스테이션(구이면 위치)

- 로컬푸드와 자연경관이 잘 어우러진 모악호수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는 물론 완주군의 지역이미지와 가치가 제고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 전체 160필지에 대한 분양 현황을 보면 완주군 내는 4.4%에 불과하고 대다수인 95.6%는 관외지역의 사람인 것으로 나타남.
  - 관외지역의 매입자 분포를 보면 전주가 123필지로 76.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밖에 서울 4.4%, 경기 3.8% 등인 것으로 나타남. 2015년말 전입 인구는 61세대 195명(1세대 평균 3.2명)으로 집계됨.

[표 4] 완주군 구이 모악호수마을 지역별 분양 현황

구분	계	완주 관내	관 외 기 타 도 시									비고
			소계	전주	기타	서울	경기	대전	대구	충청	전남	
필 지	160	7	153	123	11	7	6	2	1	2	1	
분양률	100 %	4.4	95.6	76.9	6.9	4.4	3.8	1.2	0.6	1.2	0.6	

자료: 완주군청 내부자료

#### (4) 곡성군: 전원마을+新한옥펜션형 도시민 유치 전략

- 곡성군 낙동강 인근에 조성한 강빛마을은 전원마을조성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한옥+유럽형 주택을 조합해 거주와 펜션을 겸할 수 있어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촌 활성화의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음.
  - 강빛마을은 2009년에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착수해 현재 109동의 주택이 완공됨. 주택은 100㎡(약 30평) 크기이며 집 내부는 서양식과 한옥을 혼용한 2층 형태여서 펜션 운영이 가능함.
  - 국비+지방비+자부담 등 총 43억 원을 투입해 10만 190㎡의 택지에 조성됐으며 주택 이외 문화관, 교육관, 커피하우스, 식당, 국제학교 같은 근린시설도 들어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일과 소득을 창출하려는 도시 은퇴자에게 인기가 있음.





[그림 13] 곡성 강빛마을 전경(마을 홈페이지)

- 전직 군수 출신 지도자가 마을조성 추진위원장을 맡아 공신력을 주었으며 마을운영회도 마을주민들의 안정적 거주와 소득 창출을 위해 노력함.
  - 곡성군수를 지낸 고현석 씨가 안정적 마을조성을 위해 추진위원장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을을 조성함.
  - 마을 운영은 주민들로 구성된 ‘강빛마을회’가 담당하고 있음. 마을회는 주민들이 펜션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과 여행사업 등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음.

### 3) 사례 지자체 도시민 유치정책 결과 분석

- 지자체마다 각각 다른 도시민 유치 정책은 그 표면적 특징과 일반적 홍보 내용보다는 그 정책이 내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정책의 내력을 함께 봐야 그 정책을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서 소개한 4곳의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정책 사례의 특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국내 주요 지자체 도시민 유치 사례 분석

지역명	조성마을	특징	착안 사항
고창군	월곡농어촌뉴타운, 웰파크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곡농어촌뉴타운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고창군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분양이 완료되고 정착될 수 있었음. 여기서 특별한 배려는 읍내와의 지리적 근접성, 행정적 지원, 커뮤니티 센터, 유치원 등 근린시설 설치 등임.</li> <li>▶ 웰파크시티 건설은 본래 온천지구인 택지, 고창군의 토지 수용, 비교적 낮은 택지가격, 은퇴자 주택 조성 전문기업의 사업 시행, 의료와 헬스케어 가능한 병원과의 협력으로 가능했음. 하지만 현재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성공과 실패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li> </ul>	현재 농어촌뉴타운사업은 없애졌고 대신 귀농인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웰파크시티 건설사업은 오랜 기간동안 준비를 통해 조성되고 있는 사업임.
남해군	독일마을, 미국마을, 빛담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전원주택조성사업이 주로 도시민유치에 머물러 있지만 남해군은 이를 뛰어넘어 외국의 교포를 유치해 이색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인구 증가와 관광객 유치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둠.</li> <li>▶ 독일마을에 이어 미국마을을 조성했으며 앞으로 중국마을까지 조성할 계획이어서 정책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li> <li>▶ 해변가에 위치한 빛담촌은 거주와 펜션을 겸할 수 있어 생계를 겸할 도시이주자에게 적합한 기회를 제공함.</li> </ul>	독일마을인 마을 거주자 가운데는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을 싫어해 이 마을을 떠났거나 떠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음.
완주군	모악호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악호수마을은 전주시라는 큰 도시를 끼고 있고 전주의 명산 모악산 아래 경치 좋은 구이저수지가에 위치해 자연경관이 수려함.</li> <li>▶ 뿐만 아니라 인근에 완주 로컬푸드매장인 해피스 테이션과 전북도립미술관이 위치해 문화와 식생활을 즐길 수 있어 다른 전원주택단지에 비해 여건이 좋은 편임.</li> </ul>	대도시 주변이라 분양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라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입주 완료는 안된 상태임
곡성군	강빛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섬진강을 끼고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전직 군수가 마을개발 추진위원장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공신력을 더해줌.</li> <li>▶ 전원마을 치고는 비교적 대규모(109주택동)로 조성되고 단지 안에 문화관, 교육관, 식당 등이 있으며 주택 또한 펜션을 겸할 수 있어 부업소득이 가능함.</li> </ul>	지리적 여건에 비해 다소 규모가 큰 편임. 주택 형태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단조로움.

## 2) 도시민 유치정책 사례 분석: 국외 사례

### (1) 일본 효고현(兵庫縣): 체류형 시민농원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 전략<sup>1)</sup>

- 효고현은 다자연(多自然) 거주 사업을 통해 도시민 유치사업을 추진함.
  - 다자연이라는 말은 원래 5전총(제5차 전국총합계획)에 처음 등장함.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은 없는 상태였음.
  - 그래서 이전 효고현 지사가 러시아 다차 등의 방문을 통해 도시민이 별장형태의 농가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지진과 같은 재해 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세컨드하우스 개념)을 모색함.
  - 더욱이 도시민의 농산촌 이주 및 신규인력의 유입을 통한 농산촌 활력이라는 윈윈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함.
- 따라서 효고현은 정부의 보조금과 자체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민 유치사업을 위한 다자연 거주 사업을 추진함.
  - 효고현은 1999년 무렵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마찌즈쿠리 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안에 다자연거주도 포함함.
  - 이러한 기본조례를 통해 효고현은 탄바(丹波)시 아오가키(青垣)정에 처음으로 다자연거주 사업을 실시했으며 이후 야치요(八千代)정의 체류형 시민농원 조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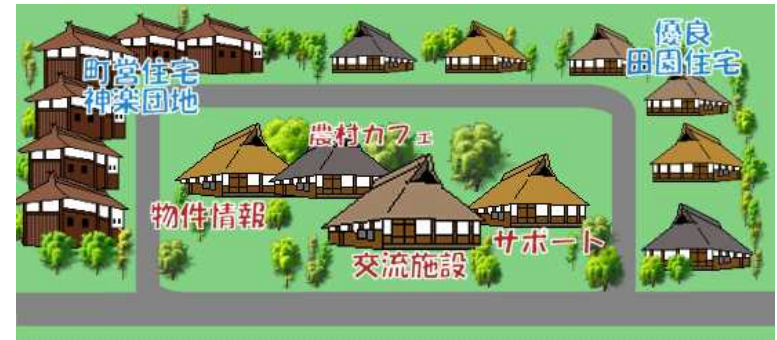
#### 가. 아오가키(青垣)정 다자연 거주지의 조성 사례

- 효고현의 아오가키정은 다자연 거주사업의 일환으로 「포레스트神樂」 단지(또는 文室택지단지)를 처음으로 조성함.
  - 단지 내에는 8채의 정영주택, 10구획의 택지(우량전원주택지역), 교류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시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그림 참조)
- i) 공영주택: 목조 단독주택으로 면적은 약 80㎡임.

ii) 교류시설: 정보발신, 교류촉진, 상담업무 등의 기능을 구비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이 교류하는 장소로써 이미지를 잡고 설계함

iii) 우량전원주택지: 정기차지권에 의해 택지를 분양함. 택지는 10구획이며 면적은 약 130평, 지대는 월 1만 엔임. 이곳에서는 전원적 풍경과의 조화,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양호한 주거지의 형성을 배려한 건축을 유도함.

- 이 단지는 아오가키정이 2002년 정 소유의 神樂단지 내 1ha을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조성하였으며 도시 주민(현재 약 100명 등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해 만드는 아오가키정 다자연 거주사업의 파이롯사업임.



[그림 14] 「포레스트神樂」 단지의 이미지 및 조감도

- 아오가키정 다자연 거주사업은 행정과 주민, 참여 도시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함.
  - 아오가키정 다자연 거주사업인 「포레스트神樂」 단지 초창기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기관, 주민, 참여 도시민이 함께 몇 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파이롯사업 등 향후 개발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함.
  - 회의를 통해 다자연거주 단지의 설립 목표를 크게 지역진흥, 도농교류, 정 주민구 중대, 지역산업촉진으로 설정함. 지역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을 정함.

1) 본 자료는 필자가 일본의 도시민 유치와 농촌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 조사의 일환으로 2006년 2월 19~23일 일본 효고현(병고현) 일원 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임.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정영주택 건립, 교류센터 설립을 추진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3년 임대시설이 완공되었고, 2004년에는 임대주택 8가구 모두가 분양되었고 10구획의 택지 중 3곳이 분양된 상태임.



▲ 단지 내의 도농교류센터의 전경. 이 건물은 국토성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것임.



▲ 도농교류센터 내부 모습



▲ 정영주택의 주택 모습



▲ 단지 인근에 소재한 정갈한 농가 모습

[그림 16] 「포레스트神樂」 단지의 조성 모습

#### 나. 야치요(八千代)정의 체류형 시민농원과 도시민 유치

- 야치요정 안에는 프로이텐, 브라이텐, 브레멘 등 현재 3곳의 체재형 시민농원이 조성되어 있음.

- 그 중 가장 일찍 조성된 곳은 프로이텐 시민농원으로 1993년 25구획을 조성한 후 반응이 좋아 1995년에 다시 35구획을 추가 조성했음.
- 초창기 시민농원을 조성할 때 그 모델을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으로 설정함. 하지만 클라인가르텐은 숙박시설이 없고 규모도 작아 일본 실정에 맞는 형태로 바꿔 조성함. 참고로 이곳은 주택지가 아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영향을 받음.

- 야치요정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고베, 오사카, 교토로부터 1-2시간 정도의 거리여서 많은 도시민들이 이곳에 입주하고 있음.

- 이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중상이며 직업은 다양함. 특히 단과세대 및 은퇴자들의 관심이 높음.
- 조성금의 반은 국책사업의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정에서 지원함. 정의 지원금은 대부분 우체국, 농협 등으로부터 용자를 받음.
- 부지는정이 농민들로부터 임대했으며 임대료는 10a당 13만 엔 정도였음. 이 임대료는 10a당 총 쌀 생산 소득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료 치고는 꽤 높은 금액임(당시 표준 임대료는 10a당 3만 엔 수준임)
-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임대는 대략 20년을 하지만 20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가 지속될 것 희망하고 있음. 또한 임대를 준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시민농원 관리조합(법인체는 아님)을 만들어 시설을 위탁 관리함.



[표 6] 야치요정의 체류형 시민농원 운영 현황

구분	프로이덴 야치요(1기)	프로이덴 야치요(2기)	브라이덴 오오야	브레멘 야마토
사업명	농촌지역후루사토 생활권정비사업	신산촌진흥농촌대 책사업	야스라기(평안함) 교류공간정비사업	신산촌진흥농림 어업특별대책사업
사업비	171,800천 엔 (국고1/2)	423,622천 엔 (국고1/2)	250,000천 엔 (국고1/2)	390,000천 엔 (국고1/2)
사업주체	(구) 八千代町	(구) 八千代町	(구) 八千代町	(구) 八千代町
면적	12,000㎡	19,000㎡	7,000㎡	16,800㎡
구획수	25구획	35구획	20구획	30구획
구획부지	310㎡	310㎡	190㎡	350㎡
개설일	1993년 4월	1995년 4월	2002년 4월	2004년 4월
폐설일	2013년 3월말	2015년 3월말	2022년 3월말	2026년 3월말
입회금	350,000엔	350,000엔	985,000엔	770,000엔
이용요금	연간 276,000엔		연간 304,000엔	연간 396,000엔
부대시설	관리실, 교류센터, 공원, 공유농원, 야외무대		공동광장, 농기계창고	잔디광장, 소바체험장, 친수공원, 캠프장, 간이숙박동
관리주체	프로이덴 야치요관리조합		네이처파크 카사가타교류협회	大和체험교류협회
이용자수 (2004년)	9,507명		2,027명	7,590명

## ▣ 프로이덴 시민농원



▲ 프로이덴 시민농원 입구. 전체 60동이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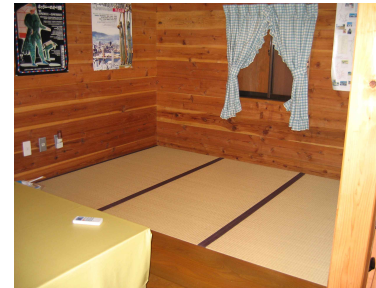
▲ 개별 주택 전경. 건물, 채소밭, 주차장을 포함해 약 100평 정도의 규모임.



▲ 프로이덴 시민농원의 도농교류센터 전경



▲ 도농교류센터내의 식당. 연회, 카페, 음식체험장 등 다용도로 사용됨.



▲ 개인주택 내부 모습: 침실



▲ 개인주택 내부 모습: 부엌



▲ 개인주택의 2층 계단



▲ 개인주택의 2층 다락방

## ■ 브레멘 시민농원



▲ 브레멘 시민농원 전경.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음.

[그림 17] 야치요정의 체류형 시민농원 전경 및 내부 모습

## (2) 독일 지자체의 교육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시민 유치<sup>2)</sup>

### 가. 잘레-홀란트 지역개발협회: 교육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시민 유치

- 잘레-홀란트(Saale-Holzland) 지역개발협회는 구 동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몇 개의 면이 사업을 중심으로 연합한 조직체임
  - 구 동독지역으로 오지였던 이 지역은 통독 이후 지역의 자립을 위해 EU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인 LEADER 프로그램을 신청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함.
  - 이 지역은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내 수공업품 생산, 국제교류 활동, 에너지 자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역점에 둔 사업은 아이들 교육이었음.
  - 아이들이 가장 깨끗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이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들 교육 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함

2) 본 자료는 대산농촌재단이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는 주제로 2016년 5월 3~13일에 실시한 독일, 오스트리아 연수에 필자가 참여한 후 정리한 내용임.

- 그 중에서도 특히 유치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유치원생들에게는 학비 보조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실시함. 투자재원은 주로 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와 바이오전기 판매로 인한 수익금이 주를 이룸.
- 그 결과 현재 이 지역에는 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찾아 들어오고 있음.

- 2015년 이 지역개발협회는 “함께 다양성 만들기-지역에 미래가 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4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대산농촌문화, 2016)
  - 첫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둘째, 청년과 노인을 위한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 셋째, 자연기반 관광과 레크레이션,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비 등임.
  - 이러한 발전 목표를 토대로 지역개발협회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핵심 가치는 ‘아이들이 찾는 마을’, ‘에너지를 자립하는 마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함.



▲ 지역에서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 유치원은 철저하게 자연친화적으로 운영됨.



▲ 바이오가스와 바이오전기를 생산해 마을의 재정적 자립을 이룩함

▲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함.



## 나. 괴리스리드: 교육과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민 유치

- 독일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우리나라의 면과 군의 중간 단계) 괴리스리드(Görisrid)는 인구감소의 극복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
  - 지역 내 최대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우유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이 지역 또한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음.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통합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마을경관계획을 수립해 마을가꾸기에 나섬
  - 그 결과 주(州) 단위와 전국 단위 마을만들기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하기도 함
- 이 마을은 도시민 유치 슬로건을 “우리 마을은 미래가 있습니다.”로 정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교육에 많이 투자함.
  - 이 마을로 귀촌한 전직 건축가(일명 ‘살아있는 사전’)와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의 산림과 자연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
  - 또한, 마을 뒤 알프스 자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이 가끔 범람해 작은 댐을 건설하면서 남게 되는 땅은 운동장으로 만들어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함.
- ▲ 댐을 짓는데 필요한 흙을 파내고 지은 운동장. 문화시설로도 이용됨.



- ▲ 지역 전체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들.
- ▲ 지역 곳곳에서 환경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

[그림 17] 괴리스리드 마을 모습

## 3) 사례 지자체 도시민 유치정책 결과 분석

- 일본과 독일의 자치단체에서도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각기 다름.
  - 일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직접적인 이주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체류를 통한 점진적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형 거주 단지 조성이 각광을 받는 반면, 독일은 지역의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앞서 소개한 4곳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정책 사례의 특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표 7]과 같음.

[표 7] 국외 주요 지자체 도시민 유치 사례 분석

국가명	사례지역	특징	유의 사항
일본	효고현 아오가키 (靑垣)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공간을 다자연 거주지역으로 설정하고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정 자체적으로 정영주택과 우양전원주택 단지를 건설해 분양함.</li> <li>▶ 단지 내에 도농교류센터도 건설하고 마을운영을 위한 NPO단체도 구축함.</li> </ul>	도시민 유치를 위해 정영주택과 단지를 조성했으나 지역 내 분양이 약 50%를 차지함
	효고현 야치요(八千代)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치요 정은 많은 도시민의 속성상 농촌에 직접 내려오지 않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시민농원을 조성해 도시민에게 분양함.</li> <li>▶ 인근 대도시가 존재해 시민농원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기할 정도로 인기가 있음.</li> </ul>	시민농원 조성은 농지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독일	잘레-올란트 지역 개발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동독지역으로 낙후했던 이 지역은 통독 이후 변화를 모색하고자 EU 농촌개발사업을 끌어 들여 마을을 변화시켜왔음.</li> <li>▶ 매력적인 마을은 아이들이 찾는 마을이라는 신념으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에너지 자립을 통해 마을도 자립하고자 노력함.</li> </ul>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주택단지를 조성하기보다는 교육과 에너지 자립에 투자함.
	괴리스리드 게마인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내 가장 큰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유유공장이 이전을 하면서 인구 감소의 위기를 맞음.</li> <li>▶ 하지만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해 문화가 있고 자연환경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바뀌어나감. 이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이주해와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li> </ul>	정부의 인프라사업(댐)을 역으로 이용해 문화와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귀농자 등 다양한 주체를 활용해 환경을 개선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04

- 태안군은 과거에 비해 인구가 많이 감소했긴 하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추세를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그동안 태안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를 막기 위해 귀어업·귀농어촌 정책을 적극 펼친 결과 2015년 경우 전년 대비 1.5%의 인구가 증가함.
  - 이는 탈성장과 저성장으로 인한 성장의 한계를 겪으면서 농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도시민들의 증가도 한 이유일 수도 있음.
  - 그러나 더 자세히 보면, 바다와 산, 농업과 수산업이 적절히 균형을 이뤄 로하스(LOHAS: 건강과 지속 가능한 삶을 살고자 하는 라이프스타일)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태안군을 찾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을 위시한 환황해 경제권이 주목을 받으면서 해양레저와 관광, 해양산업과 대중국 교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태안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과소·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이 귀농·귀촌인 유치사업임. 현재 농촌지역(도농통합시 포함)에 위치한 시·군 가운데 귀농·귀촌사업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정도로 도시민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
  - 하지만 귀농·귀촌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농림부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 사업 등을 활용해 특색있는 마을 혹은 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 참고 자료 ◆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민 유치정책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고창군 등 국내 4곳 지자체와 일본, 독일 등 국외 4곳 지자체의 정책 사례를 분석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향후 태안군 도시민 유치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첫째, 도시민 유치를 위한 신규 단지 조성은 도심지와 가깝거나 경치가 빼어난 곳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도심에서 멀어질 경우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도시민이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둘째, 대규모 귀농자 및 은퇴자촌 조성은 일부 특수한 경우를 빼면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임. 고창군의 웰파크시티 또한 조성과정에서 쉽지 않았으며 향후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셋째, 몇몇 마을을 제외하면 신규 마을 조성을 통해 도시민 유치하는 일은 쉽지 않으며 재정적 부담도 큼. 따라서 일본 야치요정처럼 체류형 시민농원 조성을 통해 센컨드 하우스 개념의 단지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마을이나 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민 유치는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게 하는 정책도 중요하며 외부 도시민을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린이교육과 생활환경 개선에 특히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태안군 자체적으로 도시민 유치를 위한 중대 규모의 마을 혹은 타운을 조성할 경우에는 중장기 프로젝트로 설정해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함. 또한, 현재 충남도가 해양수산발전 대표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추진코자 하는 <귀어귀촌타운> 조성과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토해양부, 2010,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2020).

논산시농업기술센터, 2016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증빙자료.

대산농촌재단, 2016, 대산해외농업연수(독일,오스트리아) 자료집.

성주인 등, 2011,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등, 2006,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정책대안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정미, 2016, 충남 기초공간데이터 구축을 통한 자연마을 과소·고령 실태 분석, 충남리포트 제211호, 충남연구원.

일본 전국취농상담센터(충남연구원 옮김), 2008, 일본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정책, 충남연구원.

태안군, 2014,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2014~202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고창 월곡꿈에그린(농어촌뉴타운): <http://cafe.naver.com/kkumegreen/>

고창 웰파크시티: <http://www.wellparkcity.com/>

곡성 강빛마을: <http://www.gangbitvil.co.kr/>

남해 빛담촌: <http://www.xn--jk1b69sozl.com/>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충남: <http://www.chungnam.net/cnreport/index.html/>